

로컬뉴스

국가보훈처 민원만족도 평가 전북서부보훈지청 1위

전북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우실)은 2016년 국가보훈처 소속기관 민원만족도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여 27일 국가보훈처에서 표창을 수상했다.

민원만족도 조사는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의 고객중심 행정서비스 체계 실현 및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이는 외부 전문 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민원만족도 설문조사, 불시에 전화점검을 통한 전화민원 응대실태 점검 등 3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이우실 지청장이 취임한 이래로 전북서부보훈지청은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매일 팀장급 이상이 모여 고충민원처리회의를 개최하고, 직원 중 우수 직원을 선발하여 민원친절영웅으로 포상하는 등 각종 시책을 펼쳐왔으며, 그 결과 전년도 8위에서 금년도 1위로 순위가 상승했다.

이우실 전북서부보훈지청장은 “앞으로도 친절과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소통, 공감하는 보훈행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익산=정왕원기자

여산농협, 산지유통센터 준공

익산시 여산농협동조합 산지유통센터(APC) 준공식이 27일 오전 여산 현장에서 정현을 시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시의원, 조합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익산시 일과 재배면적의 약 78%를 차지하는 여산은 특유의 석회암 토질에서 지리나 수분환경이 적고 맛이 달달할 뿐 아니라 섬유질이 많고 단단하여 전국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그간 시설 노후화와 작업량 협소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농산물 상품화 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올 3월부터 산지유통센터 신축을 추진해 왔다. 국비 3억 5천만 원, 시비 2억 1천만 원, 자부담 2억 6천만 원을 투입해 994㎡의 양파 공동선별장과 집하시설, 선별라인 등 최신 설비를 갖춘 산지유통센터가 완공됐다. 일일 선별 처리능력이 일일 1만에서 32톤으로 연간 2천톤에서 3천 톤으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정왕원기자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계절학교 참여자 모집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장상원)이 장애인·청소년들의 사회성과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고자 '2017 Fun Fun School' 동계통합 계절학교'를 운영한다.

계절학교는 내년 1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 동안 운영되며, 장애인에게 아동 및 청소년 초등학교 2명, 중·고등학교 20명을 모집한다.

이번 계절학교는 체력과 놀이를 통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된다.

접수기간은 1월 5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되며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www.gsi004.or.kr) 홈페이지 및 사회통합팀(466-7881~2)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 비응향, 관광객 포토존 설치

군산시가 비응향을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을 위해 비응향에 새로운 포토존을 조성했다.

비응향 포토존은 비응향 등대 옆 잔디밭에 바다와 선박을 상징하는 선박 조타기 모양을 높이 2.5m 폭 3.2m 크기로 제작해 관광객이 조타기 가운데에 앉아 아름다운 비응향과 요트를 배경으로 기념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조성했다.

시는 지난해에도 비응향 등대 주변에 군산출신 인기연예인들의 캐릭터 벽화 그림을 통해 비응향 아트거리를 조성하여 이곳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김장원 군산시 행안국과장은 “비응향을 찾는 관광객에게 새로운 흥미거리를 제공하여 시민관광객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문정곤 기자



올해의 익산 10대 뉴스

남산폐석산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사건 1위로 선정

2016년 익산시는 4월 재선거로 취임한 정현을 시장의 지휘아래 새로운 민선6기 시장의 추진력을 되찾는 일에 박차를 가해왔다.

정 시장은 참여와 소통을 가치로 내걸고 시민과의 소통행정에 주력해왔으며 국가예산 확보,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산업단지 분양률은 안정적 계도에 안착했고 6,500여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반면 원대 시외버스 승강장 문제, 왕궁물류단지 갈등, 남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매립 사건과 같은 난거과제가 발생하여 난항을 겪기도 했다.

그 어느 해보다 격동의 일 년을 보낸 익산시가 한 해를 결산하는 의미에서 '2016년 익산시 10대 뉴스'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1. 남산폐석산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익산시와 환경부 공동조치로 해결방안 마련

지난 6월 익산 남산 소재 한 폐석산에 발암물질이 포함된 불법 폐기물이 대량 반입된 것이 알려지면서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

익산시는 사건 발생 직후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피해 확산을 막았고 주민 건강검진, 환경오염실態 조사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진행해 왔다.

특히 시기적절한 대응으로 주민 안전 확보와 환경오염 방지에 주력해 왔으며 환경부를 설득하여 공동대응 방침을 이끌어 냈다.

현재 익산시와 환경부는 폐기물 배출업체와 처리업체에 각각 조치명령을 내린 상태로 해당 업체들은 9개월 내에 정화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전국적으로 폐석산 관련 유사사태 발생 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대응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 KTX 익산역 중앙지하차도 개통

익산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익산 중앙지하차도'가 봉행이 중단된 지 7년 만인 지난 11월 18일 개통했다.

이번에 개통된 구간은 중앙지하차도 636m 전 구간과 서부역사 진입도로 380m 구간이다.

중앙지하차도 개통으로 철도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는 물론 일일 2만 여대의 교통량을 처리하면서 모현동 일대 교통흐름이 눈에 띄게 원활해졌다.

또한 막혀있던 동서간 통맥이 뚫리면서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어 이에 따른 지역 균형 발전도 기대된다.

3. 제13회 천만송이 국화축제

국도관리청이 시행하는 송화교차로~29번 국도간 1.16km 도로도 금년 내 개통 예정이며 내년 3월 교통섬, 인도 등 잔여공사가 마무리되면 완전 준공된다.

4. 2016 지역복지사업평가 읍면동복지허브화 대상 등 5관왕 수상

익산시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16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5관왕을 차지하며 총 9천만 원의 포상금을 수상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전국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부분 대상(5천만 원)을 비롯하여 희망복지지원단 최우수(2천만 원), 2013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우수상(2천만 원), 의료급여 사제관리평가 장려상 전라북도 긴급복지지원사업 우수기관 등 5이다.

익산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 중심의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펼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최근 몇 년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며 복지선진도시의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5. 제8대 정현을 익산시장 취임

지난 4월 13일 20대 총선과 함

께 치러진 익산시장 재선거에서 정현을 시장이 제8대 익산시장으로 취임했다.

지난해 전 시장의 중도 낙마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격동의 시기를 보내온 익산시는 정현을 시장과 함께 새로운 민선6기 체제에 돌입했다.

취임식도 생략한 채 곧바로 집무에 들어간 정 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이라는 새로운 시장목표 아래 호트러진 조직의 정비와 지역사회 안정,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을 통한 민생안정에 주력하며 시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5. 제13회 천만송이 국화축제

지난 10월 28일부터 열흘간 열린 제13회 익산천만송이 국화축제는 전국 각지에서 67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면서 그 어느 해보다 대성황을 이루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축제에 189억 원의 경제 유발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 국화제품 전시와 백제왕도 익산, 희망익산, 행복익산을 스토리텔링한 국화정원 연출, 시민 참여 공연 등이 함께 어우러져 풍성한 볼거리 및 즐길 거리로 관람객들을 매료시켰다.

뒤를 이어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개소식 ▶국가식품클러스터 1호기업 착공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등재 1주년 기념 ▶도내 첫 여성 이지영 부시장 취임 ▶익산시 보건사업 분야 우수기관 5개부문 표창 수상 등이 6위에서 10위를 차지하면서 익산시 10대 뉴스 선정되었다.

한편 이번 10대 뉴스는 2016년 있었던 익산시 22개 주요 이슈들을 후보로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남산 폐석산 폐기물 매립 사태가 43%를 득표하며 전체 1위에 올랐다.

/익산=정왕원기자



최재훈 군산대 총동문회장 대학발전기금 2000만원 전달

최재훈 군산대학교 총동문회장이 27일 군산대 본부에서 나이균 총장에게 대학발전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최재훈 회장은 "지역중심대학인 군산대가 프라임사업, 대학특성화사업, 대학교육혁신지원사업 등 정부 주요 사업을 진행하며 대학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고, 대내외적 경쟁력을 증대시키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대학장정에 일조하고 싶다"며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나이균 총장은 "봉문을 중심으로 한 모교사랑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있어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고 밝히고, "소중한 정성을 대학발전에 필요한 곳에 활용하겠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콜로키움 개최

한국적 공공성의 재정립 주제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은 근대문명 수용과정에 나타난 한국종교의 공공성 재구축이라는 대학중점연구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28일 오후 3시 교내 송산기념관 2층 세미나실에서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동양포럼 주간 김태창 박사를 초청해 '한국적 공공성의 재정립'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콜로키움은 서구와 동아시아의 다양한 공공성 논의에 대한 비판을 통해 근대 한국종교에 내재한 비서구적 공공성, 즉 한국적 공공성 개념의 재정립 시도를 위해 마련됐다.

/익산=정왕원기자

군산시, 어려운 이웃 위한 성금·성품 기탁 이어져

연말연시를 맞아 군산시에 장학금 및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성금·성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유)미성콘크리트(대표 김경숙)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을 방문해 인재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5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이번 대한전통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이광현)도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성금 500만원을 군산시에 기탁했다.

또 군산시립조합(조합장 고석빈)은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문화가 정착될 바라는 마음으로 연말 저소득 가정을 돕기 위한 백미 10kg 100포(20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나포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세성)도 관내 저소득 가구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백미10kg 30포(50만 원 상당)를 나포면사무소에 기탁했다.

앞서 지난 28일 한국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회장 오순희)는 아동양육시설 4개소(모세스영아원, 구세군후생원, 일백원, 삼상에육원)를 위문하고 백미 800kg과 화장지, 물티슈 등 생필품 80박스를 전달했다.

기탁된 성금·성품은 관내 저소득 가정 자녀와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대, 2016년도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군산대학교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을 받은 데 이어 2주기 인증인 '2016년도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획득하며 우수한 교육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대학기관평가인증제는 대학교육에 대한 공신력을 위해 대학교육이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교육의 질을 평가한 것으로, 군산대학교는 2012년 1주기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올해 2주기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기간은 2017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5년간이다.

필수평가 준거는 최근 3년간 전입교

군산 청소년 보호시설 꽃동산여자중장기쉼터

검정고시 포함 내년도 대학 합격자 3명 배출

군산의 유일한 청소년 보호시설 꽃동산여자중장기쉼터에서 올해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합격한 학생을 포함 총 3명의 2017학년도 대학 합격자가 배출돼 사신을 모았다.

이번 성과는 위기 청소년에게 기본적인 숙식제공뿐 아니라 검정고시 준비 등 청소년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주효했다는 후문이다.

꽃동산은 2010년 개소 이래 기술, 위기, 방임 가정폭력 등으로 힘들어하는 100여명의 청소년들이 보호받고 다녀간 곳으로, 현재는 7명의 청소년이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며 자신들의

꿈을 향해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공간이다.

청소년들이 꽃동산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4년까지로 쉼터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성인이 되어 취업을 하거나 자립을 해 안정된 사회생활을 하는 청소년들도 있다.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꽃동산은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과정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취업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게는 취업 성공 패키지사업을 연계해 교육 과정 이수 후 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미술치료, 원예수업, 인성교육

등의 다양한 집단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인 지원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꽃동산여자중장기쉼터 오옥경 소장은 "내년에는 교육서비스의 질과 전문성을 한층 더 높임과 동시에 가족 같은 쉼터의 홈그라운드 역할에 중점을 두고 청소년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심어주고 꿈과 희망을 갖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기타 입소 등 문의는 군산시 가족청소년과(063-454-3242) 또는 꽃동산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063-451-1091)로 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나운3동주민센터-은파파출소, 주민복지향상 협약

군산시 나운3동 주민센터와 은파파출소는 지난 28일 찾아가는 복지상담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나운3동 복지협의체 위원 20명과 복지부장 58명을 비롯해 이철규 나운3동장, 유기열 은파파출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나운3동은 '찾아가는 복지허브'의 주요사업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유기열 은파파출소장은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순찰시 취약계층 안전 확인과 어려운 이웃 발견 시 주민센터에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철규 나운3동장은 "두 기관이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이 없도록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